

# 國際石油市場의 변화와 OPEC의 意思결정

M. A. 에들만

〈美国 MIT 經濟學 敎수〉

이 자료는 지난 해 12월 5일 韓國動力資源研究所가 주최한 國際石油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編輯者註)

## 1. 머리말

하나의 기구로서의 OPEC(石油輸出國機構)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멕시코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대략 세계 석유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고 적정경쟁가격보다 더 높은 석유가격을 설정해 왔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油價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또한 OPEC 이외의 산유국의 생산증가를 초래한다 함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단 하나의 독점자나 혹은 하나의 독점단체로서의 카르텔은 높은 가격 대신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을 항상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영향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었다.

일반적인 생각은, OPEC가 80년대 잔여기간 중 몇년간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아마도 1990년 이후가 되면 공급과잉은 해소되고 油價는 불가피하게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 반대로, 이 카르텔이 안고있는 문제들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렵고 불안정한 과정을 견뎌 줄 것이지만, 오랫동안 그 존속은 지탱될 것이다.

높은 카르텔가격은 생산능력을 많이 休止化시켰

고, 앞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능력을 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 카르텔은 이러한 생산능력을 억제하는데 크게 성공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OPEC라는 카르텔은 영성하고 그 통제력이 순조롭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한 상황을 겪어야만 한다.

또 한번 실질油價의 인상이 올 기회가 있을 것인데, 비록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1974년이나 79년과 같은 규모로 당장 이달에 찾아올 수도 있다. 또한 油價가 크게 붕괴할 가능성도 적긴 하지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던 카르텔이 지속하는 한 우리들은 끊임없는 변동과 불안을 겪게 될 것이다.

## 2. 油價引上 略史

70-71년의 첫번째 油價小幅引上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던 需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가격약세가 있을 후에 발생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에 한 송유관중단사태로 유럽에 일시적인 공급부족사태가 발생했다. 리비아는 이를 이용해 영구적인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美国정부의 사주가 얼마간 있기도 했지만, 어느 석유회사나 정

부도 가격인상에 저항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격인상패턴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다.

두번째 인상은 73년의 油價폭등으로, 이것은 일시적인 물량부족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었다. 물량부족현상은 일부 산유국이 산유량을 감소함으로써 만들어 낸 사태였다.

美國에 대한 소위 「石油禁輸」는事態가 되지 못했다. 美國은 「알뜰도록 中立的」인 日本보다는 못하지만, 「友好的이고 선택받은」英國과 프랑스보다는 더 잘 하면서 평균적인 행동으로 처신해 갔다.

그러나 石油감산은 실현되었다. 恐慌이 시장을 휩쓸었고 現物油價가 폭등하였으며, 그러자 OPEC 회원국들은 그들의 公式가격을 「市場價格에 맞추어」 인상시켰다. 물론 그들은 석유시장에 농간을 부렸다. 1974년 현물유가가 폭락하였을 때 그들은 공식가격을 50센트 더 올려버렸다.

75-77년에 油價는 지속적으로 약세였고, 공급은 과잉이었지만, 이 카르텔은 두번이나 油價를 인상하였다.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이 油價引上들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 때문에 곧바로 취소되었다. 78년에 수요는 더욱 약세였으나, 그들은 또 한번 일치된 행동으로 재빠르게 油價를 인상하였다. 油價인상의 불안으로 수요약세에도 불구하고 현물가격은 치솟았다.

그런데 이란革命은 예기치 않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생산량수준 유지를 약속한 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오랜 슬픈 역사를 가졌지만) 갑자기 79년 1월 생산감축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시장을 공황에 빠뜨렸으며, 현물유가는 73년 보다는 더욱 올랐다. 3월이 되어서야 현물유가는 더 오른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그러자 사우디 아라비아는 다시 생산을 감축하였고 油價는 다시 오르며, 새로운 공황이 생겼다. 80년 중반이 되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現物價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OPEC 회원국들은 74년과 똑같이 그들의 公示價格을 계속 올렸다. 그들이 단합된 행동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油價를 준수하는 한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들은 81년 11월까지 계속 油價를 인상했다. 세계는, 기초광물경제이론이 전반적으로 결여되었기 때문에 油價引上들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었다. 가격은 하야간 올라야 함을 요구하는 石油나 다른 광물

에 관해서 기초경제이론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를 증명해 내기 위해 경제이론을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

### 3. 一般的인 鈹物價格

石油나 天然가스는 광물이며 지구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부존량도 유한하다. 사람들은 때로, 10년전에 죽은 저명한 美國의 경제학자 Harold Hotelling교수가 주장한, 광물가격은 利子率의 비율로 상승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경제이론을 읽기도 한다. 만일 그것이 Hotelling교수가 쓴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 명성을 얻을 자격이 없다. 지금까지 기록이 존재하는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모든 광물가격은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70년대 초에 가격상승 기운이 한번 있는 것도 같았다. 그렇지 않고,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하였지만, 오히려 내린 적이 더 많았다. 우라늄가격은 油價폭등에 따라 공황이 닥친 것처럼 치솟았으나, 70년대 말에는 그것을 유지할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아 곧두박질 하였다.

인플레이를 고려에 넣고 84년초 우라늄가격은, 72년 전반기를 제외하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만일 1 파운드의 우라늄을 그 당시에 사서 84년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실질액수로 연 2.5%의 수익률을 얻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험자산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빈약한 수익률이다. 다른 해에 우라늄을 샀더라면 투자자금을 묶임으로써 잃게된 가치에 대한 보상은 커녕 손실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광물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험적이다. 그리고 광물은 오른 것보다 더 크게 내리기도 하여 광물을 소지하는 것을 더욱 모험적이게 만든다. Hotelling이 실제 저술했던 것은 한 광물광산 소유자는 최대의 현재가치를 낼 수 있는 시점에서 광물을 생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채굴비용을 뺀 가격이 장래에 이자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광산소유자는 채굴을 후일로 유보할 것이다. 그 결과 할인된 將來利益이 現在利益과 같게 될 때까지 현재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 간단한 생각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집중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탁아오

는 사태를 미리 예견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경쟁가격은 장래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 현재 가격은 장래공급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광물가격이 약세이고 더 떨어질 조짐이 있으면, 구매자와 판매자, 생산자와 소비자는 장래의 가격 및 비용은 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 그것이 바로 70년 이전의 석유시장상황이었고 OPEC가 첫번째의 석유가격인상에 크게 성공했던 점이다. 시장상황을 일변케 한 것은 현재나 장래의 공급부족이 아니라, 독점의 힘이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경제이론을 한번 더듬어 보았던 것은 產油國과 消費國 모두의 많은 사람들이 石油나 가스價格은 영구히 상승해야 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식적 견해는 옳지 않다. 진리는 대단히 천천히 익혀진다. 즉 카르텔이 없으면 우리는 油價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 枯渴은 그것대로, 地殼이나 探査 및 채취에 관한 축적된 지식은 또 그것대로, 제멋대로 되어 버린다.

가격이 올라야 한다는 생각은 진리가 아니며, 이 카르텔은 사전에 소폭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 카르텔은 가격을 올렸고 油田탐사와 투자를 봉쇄하여 카르텔은 그것이 존손하는 한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석유산업의 独占部門인 OPEC 카르텔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競爭部門과 中間部門을 살펴보아야 한다.

#### 4. 하나의 市場—세개의 產業部門

세계석유산업에 3部分이 있다. 경쟁적 부분은 대부분 美國의 석유이고, 소수의 다른 지역이 포함된다. 독점부분은 OPEC諸國의 카르텔과 멕시코이다. 세번째 부분으로는 「미혹시키는 부분」이라고 부를만한 것으로 후에 논의하고자 한다.

경쟁산업과 독점산업간에 매우 극적인 대조를 볼 수 있다. 73년 이전에 美國의 高費用 석유매장분은 느린 속도로 점차 떨어지는 속도로 개발되고 있었다. 다른 지역의 低費用 매장분은 더욱 더 빠르게 개발되고 있었다. 이로써 경쟁이 예상되는데,

저비용 石油는 점차 고비용 石油를 밀어내고 있다.

그때부터 극적인 전환이 있어 왔다. 美國에서 73년도 低價매장분은 고갈되고 대부분 高價매장분만 남게 되었다. 이 과정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카르텔국가들에게는 매우 저가인 埋藏分이 거의 손을 안댄채로 아직 남아 있다. 사실상 이것들은 73년도보다도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는 바, 특히 걸프灣에서 그렇다. 더우기 멕시코가 커다란 매장량을 가지고 새로이 끼게 된 국가이다.

이들 나라에서 탐사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한다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쿠웨이트는 未探査地域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나라이다. 가스田을 탐사하다가 그들은 최근에 良質의 230억배럴 규모의 油田을 발견했다. 이것은 이미 확인된 670억배럴에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생산능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어떤 탐사활동도 거의 행하고 있지 않다. 美國은 경기가 정상으로 회복된 후인 83년도에 73년도보다 3.5배나 많은 油井을 시추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기복은 있지만, 지난 3년 평균치가 73년도의 약 半이었고 84년은 더욱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가격상승은 사우디에서 더욱 커졌다.

경쟁부문에서는 產油國들은 자기생산량을 팔 수 있을 정도까지만 카르텔의 수준을 약간 하회하여 생산하거나 할인하고 있으며, 파잉능력이란 없다. 기타부문에서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팔 수 있는 양만을 생산하며 가격은 약세이다. 경쟁부문에서는 산유국들은 가격을 받아들이는 측이며 高價에는 투자를 늘림으로써 대응한다. 独占部門에서는 그들은 가격을 만들어내는 측이다. 그들은 가격을 올리며 그러면 수요가 억제되고 거기에 따라 그들은 생산량을 조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石油需要를 검토한 후에 세번째 部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 5. 石油需要의 未來

石油카르텔은 공급은 통제할 수 있지만, 수요는 통제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요일 共産圈과 OPEC를 제외한 수요이다. OPEC내의 수요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세계 수요에 포함되지는 안된다.

이 카르텔국가들은, 분명히 그리고 대단히 열려스럽게,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를 고대해 왔다.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석유수요는 변동이 있을 것이나 장기적인 추세는 현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수요가 연평균 1%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과 1% 하락할 것이라는 사람들간에 커다란 논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고 불확실하지만 예측해야 하는 중요한 숫자가 둘 있다. 그 하나는 세계경제 성장률이다. 油價暴騰은 비록 지난 10년동안의 경기침체에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예외없이 모든 선진국가들은 成長率이 73년에 急落했으며, 79년에 또 그랬다. 성장률이 전에 높았던 나라일수록 하락률은 더 컸다. 日本이 가장 빨랐었기 때문에 가장 하락률도 컸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재난을 잠시 피해가는 것 같았지만, 현재 여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다. 韓國의 경이적인 성장은 별도그룹에 포함되고 있다.

이 경기침체의 두번째 영향은 가장 심각하다.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失業이 증가하고 모든 先進國들은 輸入을 억제하는 保護貿易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어느 경제학자는 자동차수입割當의 美國經濟에 드는 비용을 신중하게 계산해 내었다. 美國자동차산업의 일자리 하나당 매년 160,000달러가 드는 비용으로 말이다. 그러나 「일자리防衛」라는 슬로건은 自由貿易을 옹호해 온 美國으로서도 항거불능의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모두를, 특히 그 당사국을 해치는 바보의 게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그들은 지난 30년대에 역시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국내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고, 현재도 강하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바보짓 때문에, 비록 시작은 그들이 먼저 했더라도 石油카르텔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石油市場에 관한 한, 결론이 73년 이전의 성장시대로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소득증가율은 GNP 單位당 사용되는 석유의 量인 石油의 GNP彈性値라는 요인에 의해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경기침체와 회복을 통해 需要構造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바르게 살

피게 된다. 그것은 중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이와 같은 느린 해마사의 변화이다.

油價暴騰 직후인 지난 1974년부터 시작되어 GNP 당 사용된 石油의 量이 점차 줄기 시작했다. 79년에는 대폭 하락했으며, 83년에는 10년전보다 30% 가량이 줄어들었다. 현재도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 과정은 자동차, 주택, 상업, 공장, 비행기, 발전소 등 모든 에너지집약적 산업을 대체하여 보다 덜 에너지집약적 공장이나 설비로 대체하는 자본투자이다. 그러나 주식자본은 발로 차서 느낄 수 있는 단순한 有形의 물건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종류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로 이루어져 있다. 두 종류의 자본은 아주 천천히 역전되고 있다. 내 추측으로는 79년의 폭등이 아니라 74년의 유가폭등에 대부분 조정돼 왔던 것 같다. 나는 이러한 과정이 금세기내에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식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투자는 또 다시 경제성장의 지체인 바, 그것은 생산량 증대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高油價의 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減少시키는 데에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美國에는 경기후퇴의 해인 82년 이래 장래를 조망해 보는 일종의 「窓」이 있다. 84년 중반까지 美國에서 휘발유 실질가격은 약 13%가 하락했다. 경유, 난방유, 항공유 등의 中質油가격은 8% 하락했다. 重質잔사유가격은 측정하기가 더 어렵지만, 天然가스업체가 잔사연료유보다 판매량이 떨어지게 된 것을 불평하게 된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GNP가 82년과 비교하여 84년 전반기에 10% 성장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만일 그 조적이 82년에 안정되고 美國이 새로운 高油價에 충분히 조정되었더라면, 석유소비가 82년과 비교하여 84년엔 10~12%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석유소비는 제로에서 오차범위에 속하는 1% 증가되었다.

이처럼 나는 석유소비 급증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OPEC 카르텔은 물론 전세계석유소비에서 非카르텔의 産油量을 뺀 나머지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두 부문 즉 경쟁부문과 중간부문에 눈을 돌려야 한다.

## 6. 非OPEC 産油國의 供給対応

美國에서는 알라스카를 제외한 공급량은, 매장량은 아주 적은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합을 이루어왔다. 매장량축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으며, 불행히도 나는 서로 연관된 두 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

첫째로, 매장량은, 탐사 및 개발이 더욱 어려워져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둘째로, 매장량은 하나의 在庫品이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投資에 의해 갱신되고 있다. 利率이 높을 때는 非效率的인 비용이 들 때에도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절약된 이자가 비용보다도 더 많다.

여기에서 매장량이 감소되어 왔기 때문에 같이 생산량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美國에서 석유생산이 얼마나 빨리 감소될 것인지 혹은 계속 그렇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中間部門 즉 카르텔도 아니고 경쟁부문도 아닌 迷惑시키는 분야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의 대부분은 수년동안 價格이 낮은 수준에 고정되어 있는 美國의 天然가스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美國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이지만 美國은 그 규제의 대부분을 해제해 왔다. 中間部門의 나머지는 여러 나라의 石油와 天然가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간부문에는 현재의 油價와 費用이라면 생산했을 때 큰 수익이 있을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다. 그러면 현재, 왜 생산되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많은 양의 매장분이 생산으로 전환될 것이며, 얼마나 빨리 실현될 것인가? 그게 바로 OPEC 및 全世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 해답은 각국의 여론 및 정책에 달려 있다. 美國에서는 그것이 석유업계에 갖고 있는 국민의 反感이며,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그래서 油價는 71~81년 사이에 통제되었었고 가스價格은 방금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高油價가 수급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석유회사들을 그저 돈벌게 만든다는 신념도 또한 존재해 있었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美國국민들은 이를 아주 천천히 알게 되었으나, 석유가격

은 현재 통제가 해제되었고 가스가격도 점차 오르고 있다. 아직 변화될 여지가 있으며, 그것은 생산이 늘고 소비는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각국에서는 정부가 大의국석유회사에 유화적이고 너무 호의적인 심한 비난을 견뎌낼 수 없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고 국내유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외국의 오일맨들과 협상할 때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 만일 어떤 소득도 없으면 그건 너무 좋지 않지만, 그들이 너무 유화적이라는 비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더 마음 편한 일이다.

더욱 나쁜 현상은 다음과 같은 逆說이다. 즉 예를 들면, 석유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석유생산에서 얻어지는 富는 더욱 확대되며, 정부가 「유화적」 임으로서 일어나는 결과는 더욱 커지고 따라서 정부에 대한 제약도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정부는 합리적인 협상을 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단지 최선의 흥정을 하여 최고의 수입을 올리려고만 노력하며 이러한 흥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것이다.

나는 전에, 石油는 차츰 부족하게 되는 非再生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카르텔의 행동 없이도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수준보다 상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관해서 논의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眞理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한 스스로를 궁핍하게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 왔다. 그러나 견해가 점차 바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7. 非OPEC 産油國의 최근의 政策變化

행동은 지금까지 이론에 앞서 달려 왔다. 각국은 石油와 가스를 지하에 묻힌 채로 두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자 그들은 투자와 생산을 더욱 늘리는 대응책을 취하였다. 이로써 공급량은 추가되고 OPEC석유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 좋은 예로 캐나다를 보자. 그들의 80년도의 國家에너지計劃에서 예상되는 석유수익으로 큰 돈을 벌 것이라는 장미빛 희망을 표명했었다. 油價는 32달러부터 매년 8% 이상 오를 것으로 상정했었

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이걸 믿지 않고 보다 많은 石油을 생산, 판매했다고 생각해 보자. 1 배럴의 석유를 80년 가격으로 팔아 위험성이 없는 증권에 바로 투자했다면 아마 오늘날 그것은 50달러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하에 묻힌 同 1 배럴은 오늘날 28달러 가치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투자한 것에 비해 45%의 손실을 본 셈이다. 그게 私企業이 되었든 세금을 거둬 사용할 수 있었던 政府가 되었든 커다란 손실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은 또한 위험한 자산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된다.

이제 또 하나의 역설을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석유가격이 오르고, 또한 美國內의 정책 때문에 과거와 달리 번덕스럽고 예측불가능한 天然가스價格도 오르게 되자, 캐나다는 생산을 줄였다. 캐나다는 어느 덴가 공급부족이 생길 것을 염려하고 또한 장래 더 가격이 오를 石油과 가스를 보유하기를 바랄기 때문에 美國에 대한 수출을 거부하였다. 市場이 없자 캐나다 石油業界는 투자를 줄였으며, 그렇게 되자 석유 및 가스의 매장량도 줄어들었다. 이것은 同정책을 합리화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자, 매장량은 줄었고 캐나다는 더욱 더 國內에다 보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石油 및 가스가격이 하락하자 캐나다의 정책은 돌변했다. 그들은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게 되었으며, 다시 온전한 석유수출국이 되었다. 천연가스도 1천입방피트(mcf) 당 5달러라는 떼떼치 못한 시세로 팔게 되었으나, 이제는 많은 물량을 내다 팔면서 3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팔고 있다.

캐나다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重質油를 5년전에 생산했다면 상당한 수익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 및 州政府은 보다 많은 수익을 기대해서 사업들을 중단시켰다. 현재는 소규모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으며, 同業界가 신뢰를 얻어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서, 80년대 후반에는, 현재의 日產 1백만 배럴에다 2년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50만배럴이 더 추가되게 된다. 이것은 카르텔國 石油의 시장 상실을 뜻한다.

유럽의 경우를 보자.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네

덜란드는 天然가스 수출을 제한했다. 공급부족을 예상했고 超高價의 가격상승을 기대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자 자국의 매장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더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한때 가스 mcf 당 7달러 판매를 거절했으나, 지금은 어느 한 가스田으로 부터의 가스 가격은 4.15달러에 판매키로 합의하였다.

英國은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租稅制度가 변경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얼마전만 해도 英國은 90년대에는 石油輸入國으로 바뀔 것이라는 확고히 굳어진 일치된 견해였다. 이제 추정매장량이 수정되어 많아졌고 그 전망도 21세까지 충분히 지급가능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소련을 잠시 보자. 최근 81년까지만 해도 美國은 소련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련의 생산규모에 관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이와 같은 착오도 무리는 아니지만 美國이 그 당시에도 명백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소련이 상당한 量의 石油을 필요로 했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남는 양만을 수출할 수 있었다고 判斷한 점이다.

소련의 경우는 문제가 과거나 지금이나 간단하다. 소련경제에 石油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입는 손해 보다는 石油販賣 收益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소련의 석유생산비용은 비교적 높지만, 世界油價는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石油輸出쪽이 훨씬 收益이 좋다. 費用과 價格의 문제이지 國內需要의 「필요성」이란 년센스다. 우리는 벌써부터 90년대나 2000년대에 가면 OPEC國들의 석유수요가 많아져서 적은 양만을 수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황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OPEC國가들은 수출을 못하면 죽을 수 밖에 없다. 왜냐 하면 石油로 구매하는 食糧, 工產品, 用役 등 모든 것이 없이는 그들은 쓰러지게 될 것이고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中小產油國의 政策變化

少量의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이러한 資產의 위험성을 좀 더 알게 되자 이들 정부는 벌써부터 國內 및 해외석유회사

들에게 매우 적극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은 石油과 가스를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을 중지하고 自國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을 냉정히 계산해야 할 지 모른다.

이들 나라들은 매장량이 적어 곧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는 판단착오가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을 함으로써 매장량은 늘어난다.

이집트에서는 정부와 업체간에 원만한 분위기가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하루 생산량이 180,000배럴에서 1백만배럴로 늘어났다. 南美에서 아르헨티나는, 그 방법을 보면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수년간 석유매장량이 아주 적었으나, 매장량이 고갈된 만큼이나 매장량이 새로이 늘어났다. 同國은 너무 低價로 요구받고 있는 판매가격 때문에 天然가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함부로 남용해 버리고 인근국에 수출을 거부하였다. 새로 들어선 정권은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콜롬비아는 얼마전에 정책전환을 통하여 國內油價를 올려서 석유회사에 이익을 허용하는 보다 현명한 정책을 실시했다. 한 석유회사는 지금까지 최대의 1백만배럴 규모의 油田을 곧 발견하였으며, 同國은 머지않아 수입을 안해도 될 것이다.

印度는 하루 150,000배럴에서 400,000 배럴로 석유생산이 증가했다. 말레이시아는 생산량이 하나도 없었는데 400,000배럴이 되었다. 3년간이나 同國은 엑슨社와 끈질긴 협상을 벌이면서 兩측이 서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그들은 서로 혜택이 가는 선에서 협상을 보았고, 그래서 石油과 가스 모두 생산량이 증가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거의 자급하는 수준에 와 있다.

이들 국가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 어떤 극적인 것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 양이 적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限界量에 관해서다. OPEC 수출량은 79년도엔 73년의 피크에는 훨씬 못미치는 약 30MB/D였고 83년도는 15~16MB/D였다(이것은 原油와 NGL의 生産總계이며 自体消費量보다도 더 적은 양이다). 문제는 간단한 계절적 변동은 차치해 두고 OPEC 생산분에 대한 수요가 20MB/D를 내내 초과할 수 있을지의 여부다. 90년이나 2000년까지는 中小產油國이나 非OPEC產油國의 매장량이 고갈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장량은 한번 쓰고 나면 없어지는 재

고라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은 매장량은 쓰여지는데도 다시 채워지는 地層在庫이다. 그것은 상승하는 생산비용으로 보충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이고 나도 그렇게 본다. 그러나 오늘날 그 비용은 가격에 비해 아주 적기 때문에 費用上昇이 현저한 경우도 여러 지역의 매장량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 손실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일련의 소규모유전 발견과 작으나마 기술향상으로 상쇄될 것이다.

## 8. 잠자는 巨人, 天然가스

天然가스는 世界石油產業에서 잠자는 거인이다. 매장량이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수송비용이 너무 높아 장거리 운송이 곤란하다. 아프리카產 가스는 겨우 유럽까지 보낼 수 있다. 東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產이 공급가능하고 수년간 日本에 少量 공급되어 왔던 알라스카產도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西유럽으로 보내는 소련의 가스량은 약 1년정도 지나면 半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나는 이것을 소련이 좋아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소련은 그들이 石油에 대해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가스價格도 혼란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가스관이 이용되도록 신경을 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초기단계나 좀 더 후에 OPEC 석유수입량 약 300,000B/D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가스使用으로 국내석유소비를 대체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석유수출을 유지하게 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天然가스의 대량판매의 주요장애는 바로, 가스는 공급부족이고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는 고집스런 잘못된 생각에 있다. 사실은 가스의 물량이 풍부하다. 소비시장의 가스가격은 需給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 가스供給량이 주거·상업·공업용 소비보다도 많다면 그것은 發電用으로 판매되어야 할 것이며, 그 가격도 重質잔사유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현 수준보다 더 많이 판매되지 않을 것이다. 소위 가스공급과잉은 단지 高價유지정책의 결과이다.

프랑스, 이테리, 벨기에 및 美國과 같은 非OP

EC世界에서 가스판매계약들이 생산실태의 원유가격과 같은 수준에서 체결됨으로써 혼란상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매우 터무니없는 주장이므로 공격 조차 하지 않았어야 했고, 단지 웃어넘겨야 했었다.

만일 가스가 판매될 때 그 가격은 소비실태의 경쟁연료와 비슷한 가격지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스수송비는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가스의 F. O. B 가격은 생산실태의 原油가격보다 훨씬 낮아야 한다.

이러한 계약들이 체결된 이유는 바로 유럽과 기타 국가들이 가스는 심각한 물량부족이며, 더욱 더 부족상태가 심화될 것이라는 공포감과 美國의 기묘한 가격규제제도 때문이었다. 美國의 이 규제제도하에서는 수입업자는 구매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가스를 팔고, 그 나머지 물량의 가격을 인상,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도록 돼 있었다.

나는 일부 소비국들은 더 낮은 가격이라면 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높은 가격에 하나도 팔지 못하는 것보다는 낮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팔고자 함을 나는 계속 지적해 왔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인지 나는 모르며, 그러므로 天然가스 생산 및 수송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나는 모른다. 그러나 상당한 실질투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OPEC석유를 그만큼 안 쓰는 셈이 된다.

### 9. 要約 : OPEC石油의 大幅的인 需要增加는 없다.

經濟成長은 70년대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지만, 好況은 기대할 수 없다.

高油價체제에의 적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世界經濟의 석유투입비율은 70년대만큼 빠르지는 않더라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

대규모 油田發見은 되지 않으나, OPEC와 멕시코를 제외한 非카르텔國家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은 계속 급속한 증가를 보여 전세계 석유수요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하게 될 것이다.

가장 주목할 사태추이는 非OPEC產油國들이 그들의 자원을 개발하여 富를 최대화하기 위해, 환상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알아내고 추구할 수 있는 公共政策과 그 範圍에 관한 것이다.

만일 OPEC가 운이 좋다면 그들의 수출량이 20 MB/D를 초과할지도 모르지만 결코 더 초과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잠자는 巨人인 天然가스가 잠을 깨는 날이면 OPEC은 현재의 수출량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 巨人이 잠에서 깨지 못하고 꿈틀거리기만 한다면 OPEC은 아마도 20MB/D정도에 계속 유지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OPEC가 활약해야만 하는 세계를 바라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이제 우리는 OPEC가 걸어온 과거의 행적과 가까운 장래에 당면한 문제들을 둘러보아야 한다.

### 10. 카르텔의 成功과 過剩能力

競爭市場은 공급을 수요에 맞추는 管理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 수요와 공급은 모두 변동하지만, 장기적인 공급부족이나 과잉과 같은 일은 없다. 공급부족은 공급량을 늘릴 투자를 유발하고 가격을 상승시킨다. 공급과잉은 가격을 상승시키고 투자와 공급량을 억제하며 가격을 하락시킨다.

카르텔은 그러한 경쟁적 과정을 봉쇄하여 경쟁상태하의 가격보다도 계속 더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거기에는 경쟁시장에서 작용하는 억제력과 반동력이 없다. 경쟁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때는 거의 수지가 맞지 않는 부분인 가장 비용이 비싸게 먹힌 생산분을 감축하게 된다. 이것은 가격하락속도를 늦추게 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계속 이렇게 하면 더욱 더 많은 생산량이 감축되어 드디어 과잉물량은 사라지게 된다.

오늘날 이와 같은 자동조절기는 없다. 高費用 생산분은 비교적 양이 적다. 실제로는 배럴당 諸稅金이 비용보다 더욱 중요하며 각국 정부는 세금을 경감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0년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각국은 실제로 생산을 부추겼다.

일년전 실질가격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었을 때 유명한 거래정보지인 PIW는 대폭적인 생산감축이 시작되기 전에 油價가 어느 정도나 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였다. 그 대답은 10달러 정도였다.

그러나 만일 실제로 가격이 15달러까지만 하락한다면 투자와 생산을 늘리는 등 극적인 사태가 전개



될 것이다.

이란·이라크戰爭은 戰費不足으로 머지 않아 종식 될 것이다. 兩國은 현재 4 MB/D도 못되는 수준에서 과거의 수준인 10MB/D까지 생산을 늘일 것이다. 쿠웨이트같은 나라는 財政收入을 보장할 만큼 생산량을 쉽사리 증가시킬 수가 있다. 만일 油價가 5 달러까지 떨어진다면 그들은 생산을 5 MB/D까지 늘리고 과거 어느 때 보다도 富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와 시간을 요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10년전의 정책을 수정하고 20MB/D로 생산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이지만, 사우디는 10년전보다 더욱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알려진 50개 유전 가운데 15개 유전을 채굴하고 있는 중이다.

더우기 兩國은 또 다시 유전탐사에 힘을 쏟기 시작할 것이다. 발견된 대부분의 유전은 소규모일 것이지만, 일부는 대규모일 것이다.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예, 즉 가스田 탐사중 발견되었던 230억 배럴의 새 油田發見은 거기서 무엇인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적극적으로 오리노코盆地의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것이며 거기서는 餘他の 전세계 총계량보다 많은 매장량이 개발될 수도 있다.

물론 이들 나라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싫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탐사·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아울러 보다 많이 생산을 늘리는 길만이 카르텔의 붕괴의 피해로부터 벗어나서 低油價에 직면한 財政收入減少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의 많은 공급과잉과 장래에 예상되는 막대한 공급과잉이 계속 치명적 위협인자이며 OPEC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공급과잉이 조금만 있어도 신경과민을 보이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수입국들은 카르텔국가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 즉 페르시아灣 油價가 겨우 84년도 가격 기준으로 3.50달러 정도였을 때 만성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지금까지 망각해 왔다.

절벽 끝을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잘못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고 절벽길이 얼마나 뚝 떨어져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조심스럽게 걷게 된다. 이것이 바로

石油카르텔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逆說이다.

## 11. 카르텔의 세가지 모델

어떤 카르텔도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 OPEC 카르텔은 지금까지 여러번 세가지 형태의 制限策을 사용해 왔다. 그 하나는 다국적석유회사로 하여금 각자 판매능력만큼만 인수토록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전체 생산량은 소비국들이 현재의 가격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제한되었다. 어떤 생산량 제한이나 판매량 할당도 필요하지 않았다. 석유회사들은 매우 적은 이익만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어질 수 있었다.

이것은 수년간 매우 잘 통용되었지만 판매량 점유율은 통제 불가능이었다. 각국은 번덕스런 재정 수입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한 국가가 한 석유회사로 하여금 생산량을 약간 더 생산케 하는 속임수를 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만일 OPEC가 이러한 영성하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불안정한 재정수입을 완충시키게 하는 外國換保有制를 수립했다면 그 회원국들에게는 최선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물뿐만 아니라 주권의 행사를 갈망했고, 석유회사들의 국유화를 목표로 했다. 더우기 74년과 또 79년의 대폭적인 油價인상이 성공함으로써 OPEC제국은 경솔한 행동을 하였다. 그들은 석유회사가 하나도 없어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아마 돌이킬 수 없이 저지른 잘못이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일을 수행해야 한다. 현물시장에서는 그날 그날 수급조절이 이루어지지만 카르텔국가들은 모두 장기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생산제한 모델 가운데 하나를 택하고 있다.

먼저, 小産油國들에게는 그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게 하고 사우디를 위시한 페르시아灣산유국들인 大産油國들은 전세계의 수급의 차이를 조절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카르텔모델은 운영하기가 매우 쉽지만,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高油價 혹은 低油價에 대한 대응은 전적으로 大産油國들이 맡게 되어 있다. 판매량감소의 부담이나 판매량 증가의 혜택이 모두 이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들은 시장으로 물량이 몰려들 만큼 가격을 높이 올리지 않

을려고 한다(전문적인 용어로 그 그룹내부의 수요 탄력성이 카르텔 전체의 수요탄력성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카르텔의 생산량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자 어떤 경우이든 그 부담이 매우 커졌다. 사우디는 가격유지를 위해서 대폭적인 減産을 하기 싫어한다. 그들이 전적인 부담을 진다면 다른 나라들이 모든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초경제이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소비국들에게 경악스런 일로 받아들여졌다. 거기엔 사우디는 자신들의 석유를 지하에 묻어 두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믿는 고정관념이 존재했다. 사우디에겐 석유는 판매할 자산이 아니라, 소중히 아끼고자 하는 家寶였다고 우리는 알았다. 그 얘기는 사우디가 소비국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혹은 세계경제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원하는 量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재미있는 한편의 소설같은 훌륭한 얘기였다. 만일 거기에 어떤 진리가 있었다면 需要弱勢는 사우디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기꺼이 생산을 줄였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능한 많은 시장세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책략을 쓰고 흥정을 벌이며 위협했다.

수요약세는 OPEC로 하여금 모두가 감산에 조금씩 참여케 하는 세번째 형태를 취하게 하였다. 이것은 高油價유지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그것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小産油國들은 각자가 만일 자기가 약간의 가격할인을 통해 생산량을 조금 늘이는 속임수를 쓴다면 다른 나라는 그 분량만큼 양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大産油國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일 그가 생산량 감축을 못하게 되면 그 카르텔은 붕괴될 것이다.

사우디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다. 그들은 두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 첫번째 것은, 상대방이 이쪽의 시장세어를 적정수준으로 갖지 못하게 만들면, 이쪽은 市場喪失이란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高油價준수를 거부하거나 市場획득이란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것은, 만일 상대방이 계속 속임수를 쓰면 이쪽은 가격전

쟁을 벌일 것이지만, 이쪽은 상대방보다 낮은 비용의 대규모 매장량이 있어 훨씬 강한 지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전쟁을 끝내 버릴 수 있다. 이처럼 需要強勢일 때는 이 카르텔은 비효율적이긴 하나 순쉬운 방법으로 그러저럭 유지해 갈 수 있지만, 수요약세일 때는 그들은 생산량과 市場을 할당해야 하는 어려운 책임을 각자에게 지우도록 해야 한다. 이때는 싸움질과 협상, 위협과 반격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84년 7월,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수요의 상승은 가격인하를 유발하는 카르텔經濟學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판매자측이 너무 팔고싶어하기 때문이다. 기대되는 수요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실제수요보다 더 많이 공급했다. 사우디에서는 OPEC의 理事會의 일원이라고도 부를만한 황태자 한 사람이 石油를 비행기와 바꾸는 특별거래를 했는데 실제 이는 그 사람이 가진 큰 職權으로 할인판매를 한 셈이다. 그 왕자는 존경받는 아마니 石油相이 결정한 한 사항을 권위로 번복시킴으로써 전세계유가를 위협에 빠뜨렸다.

사우디의 내부관리문제는 전혀 두고라도 수요상승이 油價인하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로 되돌아가서 보면,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油價가 실제 하락하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때 수요증가는 더 많은 양을 팔고자 하는 판매경쟁을 촉발시켰고, 이 때문에 계속 油價를 하락시켰다.

요점은 간단하다. 수요와 공급의 모든 변화는 카르텔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들이 자동적인 수급메커니즘을 철폐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증가된 판매량은 누가 차지하고 판매량감소의 부담은 누가 짊어질 것인가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틀림없이 첫번째 것은 좀 더 쉬운 일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제와 동시에 위협이 존재해 있다.

## 12. 한 問題의 兩面 : 판매세어와 油種間 價格差

판매세어의 문제는, 이 카르텔의 여러 原油들의 質과 位值에 따른 油種間 價格差를 정할 필요성

때문에 더욱 악화되어 있다. 카르텔국가들은 판매 세어나 혹은 가격차의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原油의 유종간 가격차가 있는 것은 보다 高價의 경질제품(휘발유, 경질연료유)을 더 많이 생산하는 高品質의 원유에 대해 정제업자들이 달리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製品間의 가격차는 등락이 있다. 만일 원유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原油는 가격이 낮게 평가되어 공급보다 더 수요가 많게 되고 또 어떤 원유는 가격이 높게 평가되어 공급보다 수요가 줄게 된다. 지난 몇년간 저유황 경질원유는, 정제업자들이 중질원유를 경질제품으로 생산하는 새 설비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가격을 갖지 못했었다.

과거에는, 原油는 대부분 「잔사유」이고 경질제품으로 생산할 수 없고 원유가격 이하로 보일러연료로서 판매되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였었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이젠 더 이상 「잔사」연료유와 같은 것은 없다. 정제처리하여 남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경질제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대시설을 가진 정유공장에 다시 팔 수 있다. 이처럼 잔사유는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고유황 중질원유는 저유황 경질원유에 비해 더욱 가치가 있게 된 것이다.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차는 이러한 과정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카르텔은 회원국사이에 벌려야 할 쓰라린 협상때문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그 문제를 무시하는 쪽을 택해 왔다. 그러므로 과거의 原油유종간 가격차는 유지되어 왔다. 카르텔의 조정지연의 직접적인 결과로 아프리카, 아부다비, 北海産 등의 저유황 경질원유는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를 겪어 왔다.

英國과 노르웨이의 北海産油國들은 석유카르텔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들은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생산량도 줄이지 않았다. 그것은 OPEC산유국에 부담을 강요한 셈이었다. 그러자 일부 카르텔국은 가격과 판매세에서 모두 카르텔규정을 어기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그만큼 北海의 장사영역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英國과 노르웨이는 생산량을 줄이기는 싫어했으므로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드디어는 다른 산유국들도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 84년의 위기를 초래케 되

었다.

同카르텔은 83년 1월의 위기를 넘긴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83년 그 당시에 아람코社들(엑슨, 모빌, 텍사코, 셰브론)은 더 이상, 비싼 값에 매겨진 사우디 원유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사우디에게 통고했다. 사우디는 시장상실로 대걸을 벌이게 되자 고의로 1월의 OPEC회의를 결렬시켰다. 사우디는 다른 나라를 버랑끝으로 몰아 넣고서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 다음번 회의에서 생산쿼터는 정해졌고 그것들은 실제로 1년동안 유지되었다.

이달에, 그들은 새로운 시장분할과 가격차의 변동을 또 다시 짜맞추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새로 안출해 낸 결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위기때마다 그럭 저럭 넘겨 나갈 수가 있다.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 카르텔의 運은 아주 좋았다. 그러나 만일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위기때마다 극복할 運이 얼마나 좋을지 의심이 간다.

여러분은 이제, 아마도 카르텔의 붕괴를 예견할 것이다. 나는 차라리 그들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묻고 싶다. 나는 그들이 다시 함께 재조직되기 위해서는 가장 끈질기고도 힘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면 그들은 상당한 성공을 누릴 것이다.

### 13. 石油카르텔이 강력한 이유

私的 카르텔들은 흔히 정부뒤에 숨어서 일을 수행하며 그래서 합의점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그러나 石油카르텔은 회원이 主權國家들이고 또 누구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국제적인 独占禁止法 같은 것도 없다.

심지어 OPEC카르텔은 소비국들의 협력도 얻고 있다. 83년 1월, OECD는 油價붕괴를 우려하여 매우 당황해 했으며 그 首席경제학자는 유가급락은 OPEC국가들에 대한 그들의 수출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先進工業國들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썼다.

韓國은 中東에 대규모 계약고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收益이 상당한 걸로 믿고 있다. 그러한 收益이 高價의 석유수입을 하는 부담보다도

더 나올지 어떨지는 하나의 재미있는 과제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수출감소와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여 소비국들은 협조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美國은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멕시코나 베네수엘라가 금융과산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油價가 하락되면 美國은 금방 적절한, 심지어는 관대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조치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美國의 호들 에너지省長官은 油價가 배럴당 25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더 대폭 떨어지는 것은 전혀 바라지 않는다는 公式立場을 밝혀 왔다. 消費國들이 25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계획을 쓸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어떤 수단을 쓸려고 노력할 것이다.

石油카르텔의 또 다른 利點이란 그동안 회원국들이 많은 석유자산을 축적해 놓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은 銅生産國들의 카르텔인 CIPEC를 보아야 한다. 이 기구는 회원국들이 貧國들이어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빨없는, 모방에 불과한 카르텔이다. 잘 알려진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카르텔들에 대한 인과응보는, 자신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다른 나라들이 책임을 저 줄 것이라고 믿고 자기의 체무를 연기할 수 만은 없기 때문에 마지 못해 가격을 인하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잇점은, 최근 석유카르텔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적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침해받은 형편이다. 사우디마저도 해외자산들이 크게 줄었는데 약 18개월만에 대체로 1,500억달러에서 1,100억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 회원국들이 강제로 이끌려 가지 않고 하나의 전략을 따라갈 만큼의 자산은 충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회원국들의 해외자산이 계속 줄고 혹은 심지어 자산감소를 막으려고 한다면 사우디는 최종적인 생산감축자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

석유카르텔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자산을 개별 회원국들에게는 나쁘다. 4년전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했을 때, 서기 650년에 그들이 「저 거만한 페르샤인들」을 쳐부수었던 역사적 사실을 전세계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또 한번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이러한 1300년된 원한은 앞으로 또 1300년간이나 지속될 것도 같다. 완고한 신앙, 앙심, 殺人欲 등은 페르샤灣 연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수십억의 오일달러가 그러한 熱情들을 키워 왔다. 이란과 이라크의 產油量은 과거 10MB/D에서 현재는 혁명과 전쟁으로 3~4MB/D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카르텔에게 일종의 큰 행운이다. 앞으로는 그러한 행운이 더욱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생산을 제한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행진할 것이다. 모든 힘은 상대적이다. 사우디는 작고 약한 나라이지만 바로 인접한 나라들보다는 훨씬 강하다.

#### 14. 맺는말

石油카르텔은 단지 그들의 판매량이 지금까지 감소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 힘을 잃지 않았다. 獨占者는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카르텔국가들은 높은 가격의 낮은 판매량으로 잘 지내고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 크게 성공했던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는 29달러가 혹은 34달러가 혹은 그 이상가격이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高油價에 대한 市場의 반응은 단지 너무 느리고 불확실하다.

통제력이 있는 카르텔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안정적인 가격과 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은 항상 파잉생산과 다른 회원국을 속여먹는 불안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지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달이 다 가기 전에 카르텔국가들은 시장을 혼란에 몰아넣고 가격을 올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생산을 줄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제 전에도 두번 그랬던 것 처럼 자신들에 막대한 이익이 있도록 시장에 충격을 줄 필요성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야마니石油相은 최근(뉴욕타임즈, 1984. 11. 15자)에 말하기를 카르텔은 公示價 이상으로 現物油價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전세계 수요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79년에 하던 것과 꼭 같았다.

카르텔국가들은 단기적으로는 油價를 어느 선에서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장의 반응이 그들에게 매우 해를 끼치고 있다. 이처럼 油價決

定은 현재의 이득과 장래의 손해間의 상호조정관계, 달리 말하자면 그들의 할인율에 따라 정해진다. OPEC밖에서는 이들 카르텔국가들이 대단히 낮은 할인율로 산정하고 있고 아주 멀리 내다보는 先見之明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그것은 사실과 반대다. 이들 나라들은 내부적으로 또한 외부적으로 모두 불안정하다. 그들의 안목은 짧고, 실질 할인율은 높으며, 장래가 의심스러워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자신들의 油價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가격을 인상하는 편을 택할 것이다. 인상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때는 그들이 어떤 방식을 이용할지 나는 모르겠다.

어느 누구도 34달러 油價를 후회하고 있다는 시사는 없다. 그들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그 油價를 낮추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油價는 이미 떨어졌다. 34달러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후퇴하여 29달러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들은 34달러 회복을 시도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위기를 조성해 낼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위기를 만들어내더라도 내가 생각키는 그 油價가 74년 또는 79년의 유가급등때처럼 인상될 수 없을 것이다.

石油카르텔 밖의 產油國 및 消費國들은 어떤 世界油價의 토대를 결정해야 한다. 나는, 현재나 금세기중에, 현재보다도 더 높은 油價를 정할 어떤 조치도 삼가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油價폭락이라는 돌발사태에 대비할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달리말하면, 현재와 대등소이한 油價로 하는 대책을 최선책으로 삼아야 한다.

수입국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석유카르텔의 약점을 이용해야 한다. 天然가스수입이 가능한 국가들은 공급불안의 대가로 얼마간 가격할인을 통해, 가스가격을 가장 가까운 대체연료보다 더 높게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들은 나중에 판매국이 가스가격을 인상케 할 요인이 될 液化工場건설은 어떤 계약이든지 해서 안된다.

가격은 어찌되었든 생산은 불안정할 것이며,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短期的인 供給不足과 供給崩壞이다. 이것들은 석유카르텔이 존재하는 한 우리 주위에서 뱀돌것이며 나는 카르텔은 지속되고 설사 붕괴되더라도 다시 부활될 것으로 생각한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이와같이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다. \*

